로컬플러스

###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국민의당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훌륭하지만 전북지역에 유일한 육아전문지원센터라는 점에서 보육정책 선도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시간제 보육지원'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의 보육지원책도 공개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졸업식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는 지난19일 오전, 2015학년도 산업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및 기능사 1년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 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상을 수상한 나노측정과의 오충석 학생 등 22명이 산업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년 기능사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송승기 학생 등 233명이 수료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산업학사학위과정 졸업생 81%가 졸업도 전에 이미 취업에 성공하여 대졸자 취업대란이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1년 기능사 과정 역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미 취업에 확정되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상태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경찰서 치안성과 향상방안 보고대회 열어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2일 오전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2016년 치안성과 1등을 달성을 위한 "2016년 치안성과 향상방안 보고대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경찰서장, 각 과장, 지구대(파출소)장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주의 확립과 현장중심 원칙을 적용시켜 소통과 화합된 모습으로 올 한해 모든 분야에서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군산경찰이 되자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4대사회악 근절, 부정부패 척결,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향상방안을 논의하고, 진화된 대민 치안시스템 구축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장광숙 이리신협 이사장 당선

## "새로운 성장사업 이끌어 조합 안정성·수입증대 위해 최선"

장광숙 이사장

박동준 상임이사

이리신협(이사장 직무대행 강성기)은 "2016년 제43차 정기총회(창립50주년)와 이사장 선거를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리신협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문상철 신협중앙회 회장, 장광숙 상무이사, 이수남 이사 및 임직원 등 5,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치러졌다.

2015년 이리신협 실적은 현 조합원 19,608명, 자산 1,703억6,321만원, 당기순익 2억2천원,배당금 153,651,218원, 배당률 2.2%등의 성과를 가졌다.

이리신협 이사장보결선거를 지난 18일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리신협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결과 1번 이수남 대 2번 장광숙은 총 유효투표 3328표 가운데 2396표(71.99%이상)를 얻어 932차로 기호 2번 장광숙 전 상임이사가 이리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신임 박동준 상임이사(전 전무) 역시 선출 당선됐다.

신임 장광숙 이리신협이사장(이하 장 이사장,57세)은 "우선 저를 선출 해 준데에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협의 기본정신을 지키며서 조합원들한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당선의 고마움을 밝혔다.

장 이사장은 "신협 정신인 자조·자립·협동을 누구보다 강조하면서 그동안 1만9천6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충실히 봉사와 업무추진를 할 것이"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층과도 경제문제를 놓고 졸곤 소통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애로 사항도 많이 해결할 것"이고 또한 "금융상황이 어려울수록 경험이 풍부한 리더가 나서서 안정적 재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게다가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사업을 이끌어 조합의 안정성과 조합원들의 수익성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의복지 증진과 권익보호 기여를 통해 기필코 믿음 에 보답할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신임 장광숙 이리신협 이사장은 "전북제일고(25회)와 신협전문대학 졸업, 원광대 행정대학원 수료 학력을 가졌으며 전 이리 신협 전무이사, 전 이리 신협 상임이사, 전 전국신협 상임이사협의회 부회장과 전 신협 전북실무책임자협의회장 등을 역임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에 이리신협 이사장 보결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얻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선박·아파트 화재사고 발생

## 해망동 내항 진화중 침몰 선원 1명 실종…나운동 아파트 폭발 2명 사망

군산시 해망동 내항에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 진화도중 침몰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22일 00시 55분께 군산시 해망동 내항(옥도면 사무소 100m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만복호(7.93톤, 무등록선, 어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섰지만 침몰했다고 밝혔다.

선박 화재 신고를 받은 해경은 소형경비함정 2척과 122 구조대 및 해양오염 방제선박을 투입해 화재진압 에 나섰으나 피해선박은 불에 탄 뒤 새벽 03시 48분께 침몰했다.

해경은 선박 내 선원 1명(남·69)이 승선하고 있었다는 선주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중 수색을 시도했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00시 32분께 나운동 한 아파트 5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주인 이모(남·61)씨와 이씨의 아버지(남·90)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폭발 소리에 놀란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집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90여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안방에서 유류통과 유류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누군가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해경,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공고

201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이 공고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달 19부터 총 19회에 걸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강이나 바다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1급·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필기와 실시시험을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면허증이 발급된다. 올해 첫 시험은 3월 19일 전북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이달 15일부터 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응시접수가 시작된다. 군산해경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응시생이 한꺼번에 밀리는 현상을 감안해 5월부터 8월까지는 월 3차례 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며, 학교·단체 등에서 다수의 응시생이 요청할 경우 응시생 편의를 고려한 출장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면허증을 취득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겨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군산꽁당보리축제 4월 29일~5월 1일 개최

'제11회 군산꽁당보리축제'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미성동 주민자치센터 앞 보리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군산꽁당보리축제는 군산농업의 성과와 군산농업자원을 축제에 담아내 군산농업의 품격을 높임은 물론 군산 흰찰쌀보리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농업소득 확대를 도모하여 군산농업인의 자존감을 살리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산꽁당보리축제위원회(공동위원장 진희완, 김규창)는 지난 2일 협의회를 거쳐 타 지역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축제기간을 조정하는 등 축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내달 초 대행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축제 실무작업에 나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꽁당보리축제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조정되어 방문객들의 아쉬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축제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리자원을 활용한 짜임새 있고 알찬 축제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교통사고예방나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경감 김용대)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익산지역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문화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이 원하는 교통사고예방활동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주민과 소통하는 경찰상 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지구대는 주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간다는 의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중앙시장 등 상가를 방문 홍보하고, 특히, 교통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노인 보행자 대상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매일 경로당을 방문, 안전보행법 등을 교육하고 LED 야광밴드와 같은 교통안전용품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경찰은 어렵고 가까이 다가오기 힘들다'고 느끼는 주민들 곁에 경찰이 먼저 다가가고자 관내 있는 아파트단지를 매일 방문해, 관리사무소장 대상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4월 30일까지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군산시는 해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30일까지 '2016 군산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도시 군산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참여한다.

점검대상은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 위험시설, 건축물·축대·옹벽·위험물을 포함해 잘못된 관행과 법 체계 등까지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김양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안전사각지대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안전점검 후 안전사각지대 및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진단이나 안전조치 명령을 통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